

■ 멕시코의 콜리마 축제

임 수 진

멕시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여럿 있다. ‘푸에블로 피에스테로’ (pueblo fiestero)란 말에 걸맞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멕시코 사람들의 삶은 거의 모든 나날이 축제이지만, 그중 유명한 축제를 들라치면 과나후아토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세르반티노(Cervantino) 축제가 있고 와하카에는 매년 7월 열리는 게라게차(Guelaguetza) 축제가 있다. 또 지역축제가 아니더라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과달루페 성모의 날 축제와 세마나산타 축제, 매년 1월 6일의 동방박사의 날 축제, 그리고 11월 2일 죽은 자들의 날 축제 등이 있다. 상업적 색채를 띠는 박람회 성격의 축제도 아과스칼리엔테의 산마르코스(San Marcos) 축제와 과달라하라 도서축제(Feria de los libros) 등이



콜리마 축제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 Instituto de Fomento de Ferias y Exposiciones de Colima, 이하 IFFECOL).

멕시코 페리아(feria)의 대표선수 격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감히 콜리마 축제(Feria de Colima)가 멕시코의 축제를 대표한다 말하긴 버거울 것 같다.

그럼에도 이 귀한 지면을 빌어 콜리마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 열거된 축제들보다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낮지만, 오랜 시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자신들의 축제라 여겨왔고, 해마다 그 안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흥겹게 한 판 잔치를 벌이는 모양속에 축제를 진정 사랑하는 콜리마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의 수많은 지역이 콜리마 축제와 같이 각 지역의 역사적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축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라, 콜리마 축제를 이해함으로써 멕시코 지역축제의 한 단면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미노레알데콜리마(Camino Real de Colima)

마리아치 노래 가운데 〈카미노레알데콜리마〉란 노래가 있다. 콜리마 주는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 전체 국토면적의 겨우 0.3%를 차지한다. 그러나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도 콜리마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오래된 마리아치 노래의 가사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멕시코시티에서 정서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콜리마 주는 할리스코와 미초아칸 사이에 삼각주 모양으로 오롯이 끼어 태평양에 면해 있다. 대서양 항구 베라크루스를 통해 들어온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무리가 1520년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한 다음 3년이 지난 1523년 콜리마에 도시를 건설했다 하니 다른 도시들에 비해 역사가 긴 편이다.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태평양 항구의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필리핀으로부터 망고와 코코넛이 콜리마 주의 항구 만사니요(Manzanillo)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왔단다.

이후 아카풀코(Acapulco) 항구가 건설되면서 콜리마는 누에바에스파냐의 태평양 교역루트에서 한 발 비껴 나게 됐지만 여전히 카카오와 땅콩을 비롯해 코코넛, 사탕수수, 목축을 통한 고기와 가죽,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금을 식민 시기 내내 부왕령 내륙으로 공급했다. 이때 만들어진 길이 카미노레알데콜리마다. 그러나 부왕령 내륙으로 향하는 길목인 콜리마 북쪽으로 해발고도 4,000미터에 육박하는 콜리마 화산(Volcán de Colima, 해발고도

3,860미터)이 버티고 있었으니 카미노레알데콜리마는 같은 제목의 마리아치 노랫말에 나오는 대로 천 번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이어지는 험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건설된 아카폴코에 비해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진 못했다.

멕시코 페리아

어원상 축제보다도 박람회의 성격이 짙은 페리아의 시작은 유럽이었다. 중세 시대에는 온전히 종교적 색채를 띠는 행사였으나, 15세기 이후 만남과 사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행사로 발전했고 16세기 이후에는 상업적 의미가 더해졌다. 유럽 곳곳에는 이미 유명한 지역 페리아가 자리 잡고 있던 중, 식민 시기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에서 페리아가 처음 시작된 곳은 대서양 쪽 항구도시 베라크루스에서 부왕청이 있던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들어오는 카미노레알(Camino Real)의 첫 관문 할라파(Xalapa)였다(할라파는 베라크루



콜리마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뽑기’. 30페소를 내면 두 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꽝’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사진출처: 임수진).

스 항구에서 동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부왕청이 있던 멕시코시티로부터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오늘날 베라크루스 주의 주도). 1720년 무렵 유럽에서부터 선단에 의해 실려 온 진귀한 물건이 부왕청에 닿기 전 펼쳐지던 곳이 할라파였고, 문화적 의미에 더해 상업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 멕시코 축제 페리아의 시원이 됐다. 진귀한 물건을 따라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상업적 성격이라곤 하나 그 안에 여흥이 같이 어우러져 축제가 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느 장날 분위기 비슷했을 것 같다. 선단축제(Feria de Flota)라 이름 붙은 할라파 축제가 열리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선단에 실려 온 물건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다. 1769년과 1770년 가장 큰 규모의 선단축제가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군함 두 척의 호위를 받은 아홉 척의 상선들이 베라크루스 항에 닿아 짐을 내려놓았고 그 물건이 해발고도 1,400미터의 할라파에 와서 펼쳐졌다고 한다. 그러나 할라파의 선단축제는 온전히 유럽에서 들어오는 선단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일 수 없었다. 대신 할라파의 선단축제를 본 떠 멕시코 주요 교역루트를 낀 거점도시에서 페리아가 조직됐다.

콜리마 축제의 시작

1570년대, 죽은 자들의 날 의례가 시작되는 11월 1일 밤 원주민과 메소티소들이 콜리마 대성당 앞에 횃불을 들고 모여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고 물자를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콜리마 축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기록은 독립직후인 1827년이다. 이름은 모든 성인의 축제(Feria de Todos Santos). 원주민들에겐 죽은 자들의 날 의례가 시작되는 밤이었고, 가톨릭 신앙에선 일 년간 배치되는 성인달력에 들지 못한 모든 성인을 한꺼번에 모아 추모의례를 올리던 날인 11월 1일이 콜리마 축제의 시작이었다. 11월 1일 개막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마침 이 시기는 콜리마에서 한해 농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연중 돈이 가장 많이 도는 때이기도 했다.

콜리마 축제는 대서양을 통해 유럽을 잇는 관문이던 할라파나 태평양을 통해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던 아카폴코에 비해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래도 매년 11월 1일을 기해 보름간의 축제가 열릴 때마다 할리스코(Jalisco)와 미초아칸(Michoacan)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요 멀리서는

과나후아토(Guanajuato)에서도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서 그 험하다는 카미노 레알데콜리마를 통해 콜리마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지역 내에서 제법 큰 축제였던 모양이다.

콜리마 축제가 처음 열린 곳은 어느 지역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대성당 앞마당(Plaza Mayor)이었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한 해 농사일을 마치고 주머니가 두둑한 지역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이는 곳이다 보니, 농사나 가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 더해 사교와 유흥이 어우러졌고 성당 앞마당엔 각종 음식을 파는 천막부터 돈을 걸고 닭싸움을 하는 공간까지 마련됐다. 당시 콜리마 축제에서 팔리던 물건은 대부분 작업연장이나 말 탈 때 쓰는 제반 도구 등과 같이 남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오색실이나 장신구 또는 색칠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등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었다.

20세기 초 멕시코 전역을 휩쓴 혁명과 바로 뒤이어진 크리스테로(Cristero) 전쟁 중에도 콜리마 축제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다.

‘모든 성인의 날’(Día de Todos los Santos) 또는 ‘죽은 자들의 날’(Día de los Muertos)에 시작해 보름간 계속되는 축제에 콜리마 사람들뿐 아니라 깊은 내륙에서 온 사람들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해안지역 콜리마 주 특유의 풍성함을 맘껏 누렸다.

누녜스 공원(Jardín Núñez) 시대의 콜리마 축제

시작 이후 그 어느 때라고 화려하지 않았을까마는, 콜리마 축제가 가장 화려하던 때는 20세기 중반이었다. 놀이기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창기엔 충분한 전기가 없어 사람들이 밀고 끄는 수준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더니 어느 해부터가는 밤이면 번쩍이는 불빛을 달고 사람을 태워 하늘을 나는 의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산 근처 산간 언저리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콜리마 축제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 보며 언젠가는 번쩍거리는 불빛을 달고서 하늘을 나는 의자에 한번 앉아 보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는지도 모르겠다. 놀이기구의 불빛이 화려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축제로 모여들었다.

그러니 대성당 앞마당에서 계속되던 콜리마 축제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여전히 인기가 좋다. 축제기간 내내 연일 만석이다. 한 번 타는 데 20페소(사진출처: IFFECOL).



캡션: 회전목마 대신 회전조랑말이 동원된다(사진출처: IFFECOL).

점점 커져, 1959년 시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던 누네스 공원(Jardín Núñez)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다. 누네스 공원으로 옮긴 후엔 콜리마 축제가 더 아름답고 화려해졌다. 전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콜리마 축제에 들어온 모



준마(駿馬) 품평회. 콜리마 축제에서 농산물 부문, 낙농 부문과 더불어 준마 품평회가 열린다(사진출처: IFFECOL).



준마 품평회 부상으로 주어지는 안장(사진출처: IFFECOL).

든 가게들이 밤이면 불을 밝힐 수 있었고 놀이기구도 회전의자뿐 아니라 나는 비행기부터 ‘미친 자동차’ (우리나라 놀이공원의 범퍼카와 비슷한 놀이기구)까지 다양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름간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회전컵에 탄 아무개의 광넨 구두코가 누녜스 공원에 면한 콜리마 최고 부잣집 돈 로드리고 집의 처마 끝에 아슬아슬하게 닿았다 하기도 하고, 좀 더 과장을 섞어 나는 비행기를 탄 아무개가 높이 날아올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보기도 했다 하였으니, 해안지역의 혼전만전하고 풍요로운 축제에 전설 같은 과장까지 섞이면서 이듬해 콜리마 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풍요와 전설적인 과장을 일 년 내내 추억하며 이듬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축제기간 동안 누녜스 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빨간 사과가 있었고 무화과나 대추야자 같은 콜리마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견과들이 있었다. 그뿐인가? 밤이면 축제가 열리는 곳곳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señoritas caneleras)이 보온병을 들고 다니며 계피차를 팔았다. 계피차를 시키면 그 안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도수가 자그마치 96도에 이르는 알코올을 살짝 섞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시골에서부터 콜리마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청량음료였다. 그들에게는 코카콜라 한 병이 곧 신세계였는지도 모르겠다. 저녁이 되면 곳곳에 불을 밝힌 포장마차들이 들어섰는데, 콜리마 토속음식이랄 수 있는 소피토(sopitos), 포솔레(pozole), 토스타다(tostadas), 타말(tamales) 등을 팔았고, 아주 잘 끓인 아톨레(atole)도 곳곳에서 팔려 나갔다. 어느 포장마차에선 ‘부잣집의 간단한

저녁’으로 알려진 꿀에 절인 호박과 고구마를 팔기도 했고, 한켠에선 술을 걸고 이 음식들과 궁합을 맞춘다는 우유를 끓여 내기도 했다. 축제 기간만큼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부자였다.

축제의 소리로 기억되는 놀이기구에서 내는 기계소음,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의 비명에 가까운 고탐소리와 더



농산물 품평회. 콜리마 축제에서는 콜리마 주 내 각 지역에서 생산된 가장 질 좋은 농산물을 선보인다 (사진출처: IFFECOL).



축제의 여왕들. 매년 6월이 되면 콜리마 주 내 열 개 도시에서 축제의 여왕 후보를 선발하고 이들이 열 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찌감치 콜리마 축제의 흥을 돋운다. 축제의 여왕 선발대회는 축제 개막식에 맞춰 치른다(사진출처: IFFECOL)

불어 축제를 더욱 신명나게 해 주는 것은 상인들의 호객소리였다. 콜리마 축제가 열리는 보름간은 시내가 들썩거릴 정도였고 그 소리가 콜리마 화산 언저리 산간마을까지 들렸다고 한다. 콜리마 축제에 선보이던 물건 또한 세상의 진보와 함께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여전히 형형색색 장난감을 파는 곳이 최고 인기였고, 부인들에겐 콜리마에서 그간 보지 못하던 새로운 부엌살림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인기였

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에겐 나이를 막론하고 역시나 돈이 오가는 투계와 투우가 가장 큰 인기였다.

그래도, 보름간 이어지는 축제의 절정은 그 해 축제의 여왕으로 뽑힌 콜리마에서 가장 아리따운 아가씨의 머리에 주지사가 직접 나와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었다. 대관식을 위해 해마다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화산 언저리 산간마을에서 끊어 왔다는 소나무를 켜 무대를 만들었다. 무대 근처에서 은은히 풍겨 주던 생소나무 향은 콜리마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축제의 냄새로 기억되기도 했다. 머리에 왕관을 쓴 축제의 여왕이 무대 위에서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할 때에는 콜리마의 모든 사람들이 생솔 향기에 취한 것인지, 아리따운 여인의 향기에 취한 것인지, 하여간 몽롱한 기분이 되곤 했다 한다.

모두가 축제의 여왕이 될 수는 없었으나, 콜리마 축제에 모여든 청춘 남녀는 그들 스스로 축제의 공주와 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밤이 되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친 콜리마의 청춘 남녀는 한낮의 허름한 작업복을 벗어 버리고 각자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축제가 벌어지던 누녜스 공원으로 모여들었으니, 남자라면 모두가 다 백마 탄 왕자님이었을 것이요, 여자라면 밤사이 잠깐 공주가 되는 신데렐라였을 것이다. 누군가 굳이 시키거나 정리하지 않아도 드레스를 차려 입은 아가씨들은 공원 언저리에 시계 방향으로 줄을 지어 돌았고, 멋진 모자와 가죽 벨트, 그리고 한껏 광낸 가죽장화로 구색을 갖춘 콜리마의 총각들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줄을

지어 돌아왔다. 각자 이상향을 만날 때까지 청춘 남녀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며 상대방을 탐색했으니, 아직도 어지간히 보수적이던 콜리마 사회에서 축제를 벌이던 보름간은 청춘 남녀에게 열린 맞선의 기회이기도 했다.

콜리마 축제의 현재

콜리마 축제가 자꾸 커지다 보니, 두 번째로 옮겨 간 누네스 공원도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어서 1978년엔 아예 콜리마 시 외곽으로 커다란 터(전체면적 21헥타르)를 잡아 축제장소를 옮겼다. 규모가 훨씬 커지고 세련되어졌지만, 축제의 성격은 예전 그대로다. 여전히 멕시코 전역에서 진귀하고도 다양한 물건이 모이고 콜리마의 내로라하는 식당들도 보름간은 축제장 안으로 들어와 천막을 친다. 콜리마의 개성 독특한 타코집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주하고 호객하다 보니 가끔은 서로가 고객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또한 축제의 한 단면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 같다. 20세기 초, 사람들이 일일이 밀고 당겼다는 놀이기구는 이제 여느 대형 놀이공원 수준만큼이나 화려해졌다. 그래도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나는 의자’와 ‘미친 자동차’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이 보일 만큼 잠시 떴다 내린다는 ‘프랑스 가는 비행기’다. 장소만 옮겼을 뿐, 놀이기구를 끌고 오는 장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인지, 놀이기구 하나하나에 닳고 닳은 채로 녹아 있는 세월의 연륜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거리 곳곳엔 10페소나 20페소(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조잡한 장난감을 파는 장수들이 쇼를 선보이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잡아끈다. 멕시코에서도 한때 프로레슬링이 어지간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지, 왕년의 선수들(luchadores)을 조잡한 수준의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파는 좌판 앞에는 아이들보다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몰린다. 어릴 때 이루지 못한 마음의 소원이었을까. 쉽게 지갑이 열린다. 그릇가게, 옷가게, 잡화가게도 어디서 그 많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인지, 밤늦도록 켜 놓은 백열등 아래 사람들로 빼곡하다. 그래도 콜리마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이는 매년 똑같은 장소에 담요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자리 잡는 담요 장수다. 사람들 말로는 수십 년 전 멕시코에 화학섬유 담요(일명, 산마



해마다 콜리마 축제에 찾아오는 전설적인 담요 장수. 기술이 발달하여 이젠 무선헤드셋을 쓰고 호객한다. 축제 막바지라 커커이 쌓인 담요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다(사진출처: 임수진)

르코스 담요)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곳 콜리마를 찾아오던 이의 아들이란다. 몇 미터 높이로 쌓아 놓은 담요 위에 올라 앉아 마이크를 든 채 속사포와 같은 속도로 말을 쏟아 내며 호객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안에 온갖 풍자와 소문이 다 들어 있어 그 자체로 또한 재미난 만담이다. 그러니 날 더운 콜리마에서도 사람들은 해마다 담요 장수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구수한 만담 덕일까. 아니면 때는 바야흐로 연중 가장 춥

다는 12월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설까. 그래도 최저기온 영상 18도 이상인데, 하여간 담요는 불티나게 팔린다.

콜리마 축제가 어지간히 현대화됐다지만, 바닥은 여전히 흙바닥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폴쩍거리는데,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작두로 깎두기 모양으로 잘라 파는 사탕수수 한 봉지를 사서 단물을 빨아 먹으면 그만이다.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커다란 솥에 삶아 파는 옥수수에 크림과 치즈, 그리고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고 라임 즙을 적서 먹는 것도 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별미다. 지난날 축제의 여왕을 뽑을 때마다 생소나무를 켜 만들던 무대는 사라졌지만, 대신 훌륭한 원형 극장이 만들어져 그 안에서 축제의 여왕 대관식이 이뤄지고 한 해 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동네밴드들도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된다. 축제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엔 연일 대형 전세버스들이 줄 지어 주차돼 있다. 과거 마차를 타고 그 험한 카미노레알데콜리마 길을 통해 콜리마 축제를 보러 오던 외부 사람들의 후손들일 것이다. 한 해 축제에 드는 사람만 70만여 명! 콜리마 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다.

이곳 사람들이 해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라 해도 내겐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콜리마에 있는 이상 주변에서 나의 그 무심함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9월 중순 독립기념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마음은 벌써 축제에 가 있다. 오랜 세월 축제를 간절히 기다려 온 콜리마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전통이랄까... 10월 마지막 날, 콜리마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콜리마 대학에선 두둑한 상여금이 나온다. 이름하여 ‘축제상여금’. 그리고 3~4일간의 공식 휴가가 주어진다. 가서 쓰

고 즐기라는 얘기다. 그러니 콜리마 축제를 아니 기다릴 수가 없을 터. 수표 형태로 나온 상여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마다 밖으로 길게 줄을 섰 풍경이 콜리마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그날 밤, 콜리마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축제의 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름간 콜리마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피에스테로(fiestero)가 된다. 내겐 하룻밤 둘러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콜리마의 젊은이들은 그곳에 보름간 출근 도장을 찍는다. 하루하루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 스스로 축제의 기분을 만들어 내는 초능력에 있는 것 같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지, 백발이 성성한 이들도 연일 축제의 장을 향한다. 어쩌면 그곳에서 지난날 그들이 청춘 남녀였을 적에 한껏 차려 입고 남녀가 반대방향으로 누녜스 공원을 빙글빙글 돌던 시절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지도 모르겠다.

시작과 끝은 같은 걸까. 몇 세기 전 중국에서 실려 온 물건이 펼쳐졌던 콜리마 축제엔 오늘도 여전히 중국에서 실려 온 물건이 펼쳐진다. 다만 지난날 페리아에 펼쳐지던 그 물건은 너무 진귀해서 그저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지경이었다는데, 요즘 중국에서 실려 온 물건은 너무도 경제적인 모양이다. 축제 보너스도 나왔겠다, 어지간하면 살짝 지갑만 열어도 이런 저런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어쩌면 이들에겐 온통 ‘메이드인차이나’ 일색인 오늘날의 콜리마 축제가 더 오지고 푸진지도 모르겠다.